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성 정 아

홍 혜 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초기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친밀감두려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46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애착모형과 회피애착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불안애착모형의 매개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 불안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이중매개효과가 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애착모형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자기노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장면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따라 친밀감 두려움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한다는 것과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민감성을 자기노출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거부민감성, 자기노출, 친밀감 두려움

* 본 연구는 성정아(2013)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 02-300-1700, E-mail : hyhong@mju.ac.kr

우리나라에서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의 시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에 대해 새로운 탐색이 시도되는 때이기도 하며(한선영, 2005) 이성교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기이다.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역할 실험의 단계로 이 시기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결혼관과 인생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김중술, 1997).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는 친밀감의 욕구와 관련되는 행위이다. Erikson(1963)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psychosocial development stage)에서 초기 성인기에 발달과업으로 친밀감을 제시하였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친밀감을 획득하지 못하면 고립의 위기를 느낀다고 하였다(차정화, 전영주, 2002).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만족스런 삶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Thelen, Wal, Thomas, & Harmon, 2000). 반면 친밀한 관계 형성의 반복적 실패는 우울과 외로움, 의욕의 저하, 정서적 고립, 스트레스의 부적절한 대처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한다(Doi & Thelen, 1993).

Descutner와 Thelen(1991)은 친밀감 형성을 저해하는 심리적 불안을 친밀감 두려움(fear of intimacy)이라고 하였다. 친밀감을 형성할 때에 자신의 정체감을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작용을 하여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정윤경, 2004; Stone, 1973). 또한 특정한 타인과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교류와 자기 노출을 할 때 자신의 취약성이 드

러나거나 거부에 대한 위협이 예상될 수 있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Descutner & Thelen, 1991). 이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사회불안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감정적 의미의 교류가 전제되는 밀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말하며 친밀감을 대면하는데 있어 선행되는 공포를 말한다(Descutner & Thelen, 1991). 또한 이 두려움은 고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대와 밀착하려고 애쓰고 밀착에 실패할 경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밀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 애정 상실에 대한 공포를 의미한다(Schmidbauer, 1985). 즉 친밀감 두려움은 친밀감 형성을 저해하는 심리적 불안으로 자신에게 의미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중요한 대상과 나눌 때 생길 수 있는 불안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친밀감 두려움은 외로움, 자기노출, 사회적 친밀감, 사회적 바람직성과 상관이 있고(Descutner & Thelen, 1991), 수치심 경향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twak, Panish, & Ferrari, 2003). 어린 시절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친밀감 두려움이 높고, 그 중에서도 더욱 친밀감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 결혼 관계에서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epic, 2007). 또한 이스라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한 어머니보다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가 친밀감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ngelchin, 2008). Thelen 등(2000)의 연구에서 친밀감 두려움은 데이트 관계가 향후 몇 개월 만에 끝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혼인 초기성인기에 발달단계에 있어 친밀감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다 할 수 있다.

한편 Fraley와 Shaver(2000)는 애착이라는 틀로 개인의 특성과 대인관계, 정신 병리 뿐 아니라 성인의 애정관계의 발달, 유지, 이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애착이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유대관계이다. 아동은 이 관계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신념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Bowlby, 1980).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가 민감하고 일관되게 충족되어온 아동은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자신은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있다고 느끼며 타인들이 자신을 수용해주고 지지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킨다.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가 암시적으로나 외현적으로 거부당하는 등 비일관적인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 그리고 자신은 가치롭지 않다고 느끼고, 타인이 자신을 수용하고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의심과 두려움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내적작동모델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데 사용하는 틀로 성인기의 대인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최해립, 조영주, 2001; Marrone, 1998). 또한 새로운 대인관계 환경에 의해 도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Bowlby, 1980).

초기애착과 연인과의 유대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진행된 Hazan와 Shaver(1987)의 성인애착연구에서 아동의 애착패턴이 성인기의 대인관계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인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려, 친밀감, 신뢰 등의 긍정적인 감정과, 질투,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감정

의 기복 등의 부정적 감정도 애착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고, 사랑하는 과정에서의 이별이나 실연도 애착대상과의 상실과 분리의 개념과 매우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이성관계 자체가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임이 다른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Simpson, 199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이성간의 친밀한 관계의 심리적 특성을 성인애착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지지하여 준다.

애착에 따른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안정애착은 불안정애착보다 긍정적이며 높은 수준의 신뢰, 헌신, 만족, 상호의존을 보였다(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 안정애착인 성인은 상대의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그에 맞는 적당한 자기노출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대상으로 분류하여 볼 때 흥미롭게도 부모나 친구보다 연인에게 더 자기를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Mikulincer & Nachshon, 1991). 이러한 자기노출은 Erikson(1963)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초기성인기의 주요과업과 관련하여 친밀한 가족같은 대상을 만드는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안정애착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이 낮다고 보고되었다(Lukwak, Panish, & Ferrari, 2003). 반면,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주 연인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거나 버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지나치게 연인과 가까워지길 바라며(Hazan & Shaver, 1987) 강박적이고 열중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수준의 신뢰, 헌신, 만족, 상호의존을 가지는데 회피애착의 이런 특성은 불안애착의 강박적 성향

과는 다르게 친밀감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Hendrick & Hendrick, 1989; Levy & Davis, 1988).

성인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Hazan과 Shaver(1987)의 안정애착, 불안/양가애착, 회피애착 3범주의 유형과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안정형, 거부형, 두려움형, 몰두형 4범주의 유형이 등이 있으나 이후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기존의 성인애착의 측정 도구들을 분석하여 성인애착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요인과 회피요인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도 김광은과 이위갑(2005)의 연구에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범주 애착척도와 Brennan, Clark와 Shaver(1998)의 낭만적 관계를 측정하는 성인애착척도를 함께 측정하여 본 결과, 안정형은 이성관계에서 회피경향이 낮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낮으며, 거부형은 회피적 경향은 있으나 불안은 높지 않고, 몰두나 두려움형의 경우는 이성관계에서 회피와 불안을 평균이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척도의 분류의 기준이 다를 뿐 성인애착은 불안요인과 회피요인만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불안요인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파트너가 자신과 가까워지지 않거나 또는 멀어지거나 버려질까 걱정하는 차원으로 설명되며, 회피요인은 불안요인과 달리 파트너와 자신의 거리가 가까워져 자신의 독립성이 침해당할까 걱정하는 차원으로(Brennan et al., 1998) 설명된다. 또한 불안요인의 경우 집착, 질투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등과 .80의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요인의 경우 친밀감 회피, 친밀감 불편과는 .90이상의 상관을 갖고 자기 의존, 불편감 노출과는 .85이상의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Brennan & Shaver, 1995; Carnelly, Piettomonaco, & Jaffe, 1994; Feeney & Noller, 1994; Rothbard, Roberts, Leonards, & Eiden, 1993; West & Sheldon-Keller, 1994; 김광은, 이위갑, 2005 재인용).

국내연구로는 부모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은 부적상관을 보이며(나보영, 2007; 한선영,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한미혜, 2010), 성인애착이 회피애착일수록 친밀감 두려움이 커지며(최연화, 2012) 부모양육태도와 친밀감 두려움 사이에서 대학생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친밀감 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남희, 2012)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Repic(2007)의 연구에서 어린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높은 친밀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유지되며 중요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에서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수가 적고,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김남희, 2012; 최연화, 2012)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불안정 성인애착을 불안애착요인과 회피애착요인으로 나누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애착 이외에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자존감, 수치심, 관계중독, 자아 분화, 자기 불일치(김남희 2012; 나보영, 2007; 최연화, 2012; 한미혜, 2010)가 검토되었으나 친밀감에 대한 연구보다 친밀감 두려움에 대한 연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불안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와 회피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현실화 되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하며, 거부에 대한 요인을 과민하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으로(Feldman & Downey, 1994) 일반적인 대인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활성화 된다(Downey & Feldman, 1996).

Bowlby(1980)는 애착이론에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서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수용과 지지를 구해야 할 때 거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Feldman과 Downey(1994)는 Bowlby의 애착이론에서 초기거절경험을 바탕으로 발달된 내적작동모델을 인지-정서적 처리 과정과 연결시켜 거부민감성을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는 불안정한 내적작동모델의 발달과정, 즉 주 양육자가 아동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향이 크면 아동이 거절에 민감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아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지지받아야 할 때 아마도 거절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며 거절로부터 피하는 것을 특별히 중요한 가치로 습득하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그들은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하거나 약점을 드러내야 할 때 예기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거절에 대한 예기 불안은 거절의 단서에 대해 과잉각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약간이거나 모호한 거부의 상황에서도 너무 쉽게 거부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거부로 인식한다. 거부의 인식은 즉시 분노나 적대감, 의기소침, 지지의 철회, 질투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며 상대의 행동을 부적절하게 제어하려고 하는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이렇듯 거부민감성을 애착으로부터 발달된 개념으로 볼 때 불안정 성인애착 역시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초기애착과 관련된 경험과 낭만적인 애착의 관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owney, Feldman, Khuri, & Friedman, 1994) 터키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애착유형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rozkan, 2009). 국내에서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각각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며(박희경, 2011),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피수준이 낮고 불안수준이 높은 집착형이 거부민감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영, 2010).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이 존재할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 방어체제로도 볼 수 있는데(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 2004) 이들은 사회적으로 위협을 느낄만한 단서에 반응식역치가 낮아 위협적인 표시에 집중하고 강한 정서반응을 일으킨다(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또한 이로 인해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격렬한 행동을 보여(Downey, Feldman, & Ayduk, 2000) 추가적인 거절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enson et al., 2009; Levy, Ayduk, &

Downey, 2001).

Downey, Freitas, Michaelis과 Khouri(1998)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은 거부민감성이 낮은 여성보다 이성관계 갈등 이후 더 많이 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을 통해 가까운 상대와 밀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부, 애정상실에 대한 불안인 친밀감 두려움과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 및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이 친밀감 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자기노출이란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언어진술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Highlen & Voight, 1978). Greenberg와 Safran(1989)은 자기노출을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노출하는 사실적 자기노출과 자신의 주관적 세계를 반영하는 감정적 자기노출로 구분하고, 그 중 감정적 자기노출은 사실적 자기노출보다 노출자의 핵심적인 자기정의와 더 가깝다고 하였다. 감정적 자기노출은 파트너로 하여금 노출한 사람을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Reis & Shaver, 1988) 친밀한 관계에서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Lin, 1992; Morton, 1978).

자기노출의 차이는 애착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애착형성을 통해 어떤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는가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유형의 태도와 목표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 태도와 목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자기노출을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Berg, 1987; Miller & Read,

1987). 대학생의 애착에 따른 자기노출을 연구한 Mikulincer와 Nachshon(1991)의 연구 결과, 안정애착과 불안애착은 회피애착보다 더 많은 자기노출을 보였고,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은 안정애착보다 낮은 자기노출 유연성과 부족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불안애착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애착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서를 과잉 표현한다(Main, 1995). 불안애착의 자기노출은 일관되지 않은 거절과 부분적인 박탈 경험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Shaver & Hazan, 1988). 불안애착은 애착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위해 타인과 융합하려고 종속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기노출을 사용하는 것으로(Certner, 1973) 안정애착과 같이 높은 자기노출을 보이기는 하지만 안정애착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또 다른 애착대상이 되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요구하고(김수진, 2001; 박은영, 2004; 이경희, 2001) 심리적 불편함에 대한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진, 노안영, 2009). 반면 회피애착의 자기노출방식은 사회적 관계에서 거리두기와 분리가 목표로(Bowlby, 1982; Shaver & Hazan, 1988) 친밀하게 자기를 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출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며 자기노출이 많은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회피애착의 내적작동모델과 상호작용목표는 다른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거나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에 대한 동기의 결핍을 나타낸다(Mikulincer & Nachshon, 1991). 따라서 회피애착은 상대방에게 사적인 정보나, 실망스러울 수 있는 주제거리 등 자신에 대한 노출을 덜 하게 된다(Collins & Read, 1990; Kobak & Hazan,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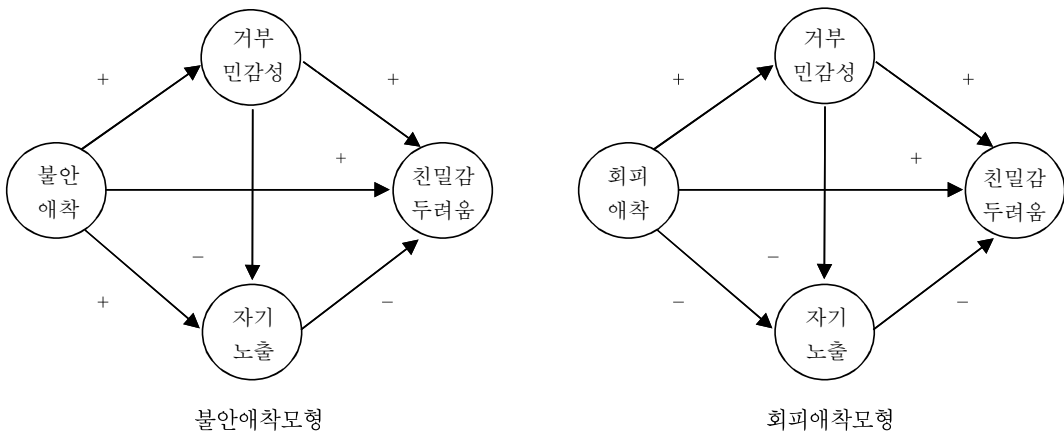
Mikulincer & Nachshon, 1991).

Mount(2005)의 연구에서 불안애착은 자기노출의 깊이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회피애착은 자기노출의 깊이, 양, 정직성과 의지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진과 노안영(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움추구 의도를 연구한 결과 성인애착에서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자기노출이 증가하였고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자기노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 Russell와 Zakalik(2005)은 애착회피가 증가하면 자기노출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Laurenceau, Barrett과 Pietromonaco(1998)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적 자기노출과 감정적 자기노출을 나누어 자기노출을 연구함에 있어 하부요인으로 애착유형을 예측변수로 사용했을 때 애착유형과 자기노출은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하여 애착과 자기노출에 대한 관계는 연구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보고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착 이론의 근거에 따라 불안애착과 자기노출, 회피애착과 자기노출의 관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불안애착은 자기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피애착은 자기노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거라 가정하고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자기노출을 거쳐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모형을 통해 검증하여 애착요인에 따른 개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노출은 친밀감을 잘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다(Jourard, 1971; Waring & Chelune, 1983).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이 긍정적 사건을 노출한 경우 남편의 자기노출은 남편의 친밀감과 부인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며, 부인이 긍정적 사건을 노출한 경우 부인의 자기노출은 부인의 친밀감에, 남편의

공감반응은 남편의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영, 조현, 권정혜, 2009). 미혼남성의 경우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영향을 주고(최지영, 최연실, 2010), 여성은 상대의 자기노출과 공감반응이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남성의 경우 자신의 자기노출과 공감반응이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Mitchell et al., 2008). Laurenceau, Barrett와 Rovine(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노출과 파트너노출이 친밀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타인과의 상호작용, 노출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일관적으로 보고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자기노출과 친밀감 두려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과 친밀감에 대한 연구를 배경으로 자기노출이 친밀감 두려움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자기노출이 친밀감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Reis와 Shaver(1988)는 친밀감 과정 모델에서 노출자가 자기노출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노출자가 지각하는 것에 따라 친밀감의 정도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기노출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기노출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자기노출을 애착으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과 상호작용목표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때(Berg, 1987; Miller & Read, 1987)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우호적일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거부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기노출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부담을 보다 더 위협적으로



+ 정적관계 - 부적관계

그림 1.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 거부민감성, 친밀감 두려움에 대한 가설모형

지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친밀감 추구를 위해 자기노출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Ayduk, May, Downey와 Higgins(2003)의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노출이 완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박혜련, 손은정 2012)가 있지만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과의 관계를 또 다른 개인적 특성과 연관하여 입체적으로 본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거부민감성을 다시 검토하고 불안애착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와 회피애착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구체적인 모형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성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대로 성인 불안정 애착을 요인별로 나누어 불안애착모형과 회피애착모형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첫 번째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자기노출을 매개로 하여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로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이중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대학 3곳, 경기 소

재의 대학 2곳, 강원 소재의 대학 2곳, 충북 소재의 대학 1곳, 충남 소재의 대학 1곳, 경북 소재의 대학 1곳, 총 10개의 4년제 대학생 61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02부를 먼저 제외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51부를 제외한 461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학생 202명(43.8%), 여학생 257명(55.7%), 미기재 2명(0.4%)이며, 1학년 117명(25.4%), 2학년 90명(19.5%), 3학년 156명(33.8%), 4학년 96명(20.8%), 미기재 2명(0.4%)이었다. 연령은 18세~22세 275명(59.6%), 23세~27세 182명(39.5%), 28세~31세 4명(0.8%)으로 평균나이는 22.3세이다.

측정도구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로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친밀한 관계 경험-개정판(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R: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피애착 18문항, 불안애착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 애착을 나타내며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혹은 회피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현(2004)의 연구와 같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을 ‘다른 사람들(others)’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항목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2, 불안애착의 내적신뢰도는 .91, 회피애착의 내적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이복동(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한다. 18개의 상황마다 자신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는 정도와 상대가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를 묻는 2가지 내용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6점까지 6점 Likert 척도에서 평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는 정도의 점수와, 상대가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를 역채점하여 거절에 대한 기대로 바꾼 점수를 곱하고, 곱하여 나온 18개 상황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다. 최저 1점에서 최고 36점까지 산출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자기노출

자기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Balswick(1975)의 감정노출척도(The Expression of Emotion Scale)를 변경애(1994)가 번역하고 예비조사를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파트너에 대한 감정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로 4개의 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출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 감정노출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감정노출의 내적신뢰도는 .84, 부정적 감정노출의 내적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친밀감 두려움

친밀감 두려움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Descutner와 Thelen(1991)이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친밀감 두려움 척도(Fear-of-Intimacy Scale: FIS)를 한선영(2005)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친밀감 두려움 척도는 현재 또는 앞으로 데이터가 예상되는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묻는 30개 문항과 과거의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묻는 5개 문항,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에 나타나는 친밀감 두려움을 묻는 30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30개의 문항은 다소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두 가지 요인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두려움을 예상하는 요인과 개방을 예상하는 요인으로 나누어져 각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을 생각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는 15개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 두려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검증하기에 앞서 SPSS 18.0에서 하위요인이 없는 불안애착, 회피애착, 거부민감성을 탐색적 요인분석하여 측정변수를 제작하

고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값을 산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불안애착모형(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와 회피애착모형(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간접경로의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한 변형모형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는 표 1과 같다. 주요변인들의 왜도가 2보다 작고 첨도가 7보다 작음으로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형성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로는 불안애착은 회피애착($r=.35, p<.001$)과 거부민감성($r=.55, p<.001$)과 친밀감 두려움($r=.3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 자기노출과는 유의한 상관을 가지지 않았다. 회피애착은 거부민감성($r=.41,$

표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1	2	3	4	5
1. 불안애착	-				
2. 회피애착	.35***	-			
3. 거부민감성	.55***	.41***	-		
4. 자기노출	-.05	-.23***	-.24***	-	
5. 친밀감 두려움	.33***	.40***	.47***	-.44***	-
평균(M)	3.38	3.34	7.47	3.32	2.56
표준편차(SD)	.93	.79	3.51	.71	.54
왜도(skewness)	.15	.05	.95	.21	-.24
첨도(kurtosis)	-.51	-.43	2.46	-.10	-.08

N = 461, *** $p < .001$

$p < .001$)과 친밀감 두려움($r = .40$, $p <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지며, 자기노출($r = -.23$,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은 자기노출($r = -.24$, $p < .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가지며 친밀감 두려움($r = .47$,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기노출은 친밀감 두려움($r = -.44$, $p < .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의 검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거부민감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여러 문항들이 한 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많은 수의 문항을 그대로 해당 구성개념의 측정변수로 사용했을 때는 정규분포의 가정이 깨질 확률이 높으며, 측정변수의 수만큼 모수 추정에 필요한 사례의 수가 적어 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기준인 .90 이하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항목 묶음(item parcel)이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항목 묶음을 분석에 적용하여도 모델 인과모수의 검정통계량은 거의 변하지 않고, 모델적합도 지수로는 RMSEA를 제외한 주요모형 적합도지수가 개선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조현철, 강석후, 2007).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조현철과 강석후(2007)의 주장을 근거로 잠재변인 별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항목 묶음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1)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은 측정변수들의 정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불안애착은 4개의 측정변수로 불안 1에 8, 15, 21, 23, 25, 26, 31, 36번 문항을, 불안 2에 2, 17, 22, 24번 문항을, 불안 3에 10, 13, 14, 20번 문항을, 불안 4에 6, 12번 문항을 할당하여 구성하였고, 회피애착은 4개의 측정변수로 회피 1에 7, 9, 18, 19, 27, 29, 30, 33, 34번 문항을, 회피 2에 5, 11, 16번 문항을, 회피 3에 1, 4, 35번 문항을, 회피 4에 3, 28, 32번 문항을 할당하여 구성하였다. 거부민감성은 4개의 측정변수로 거부 1에 1, 2, 8, 9, 11, 13, 15번 상황을, 거부 2에 3, 4, 7, 14번 상황을, 거부 3에 6, 10번 상황을, 거부 4에 5, 12, 16, 17, 18번의 상황을 할당하여 구성하였다.

표 2. 불안애착모형과 회피애착모형의 측정모형적합도 지수

	χ^2	df	p	GFI	NFI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불안애착 모형	163.68	48	.000	.946	.932	.932	.951	.072 (.060~.085)
회피애착 모형	164.69	48	.000	.943	.918	.918	.940	.073 (.061~.085)

규분포를 전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생성된 측정변수의 침도와 왜도의 값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각 측정변수들이 왜도 < 2, 침도 < 7의 조건을 갖추어 정규분포를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사용되기에 적합하였다(우중필, 2012).

불안애착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불안애착이 .61~.92, 거부민감성이 .56~.83, 자기노출은 .63~.87, 친밀감 두려움은 .73~.84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회피애착이 .47~.85, 거부민감성이 .57~.83, 자기노출은 .65~.85, 친밀감 두려움은 .71~.85로 나타났다. 두 모형 모두 요인부하량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12개의 측정변수가 4개의 잠재변수들의 구성개념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모형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GFI, NFI, CFI, TLI는 .90이상이어야 수용되고, RMSEA는 .05이하이면 매우 좋으며 .08이하이면 양호하고 .1이하이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한다(우중필, 2012). χ^2 값은 표본의 수와 경로의 수에 민감하여 표본의 수가 많아지거나 모델이 복잡해질 경우 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 χ^2 통계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른 적합도 검정결과와 함께 모델 적합도를 판단해야한다. 불안애착모형과 회피애착모형의 χ^2 의 검정결과는 가설이 기각되어 부적합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는 기준을 충족하여 매우 양호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각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검증된 측정모형에 인과관계를 더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라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불안애착모형에서 불안애착->친밀감 두려움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불안애착모형의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카이제곱 차이검증한 결과 대안모형의 $\chi^2=167.71$ 이고 $df=49$ 로 두 모형의 χ^2 차이가 자유도 1차이에서 임계치인 3.84($p < .0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자유도 1을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χ^2 값의 감소를 가져왔기에 연구모형이 최종모델로 채택되었다. 회피애착모형의 적합도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불안애착모형과 회피애착모형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와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불안애착모형에 대한 각 경로의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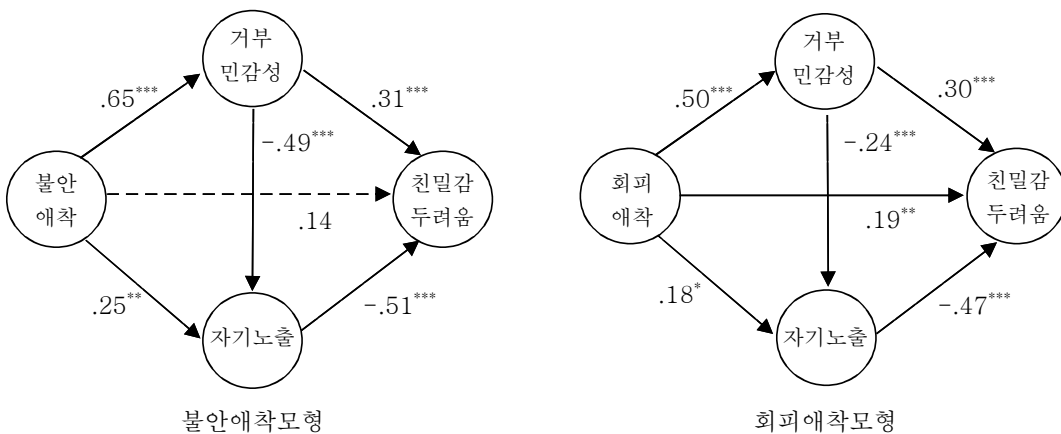
표 3. 불안애착모형과 회피애착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GFI	NFI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불안애착 모형	163.68	48	.000	.946	.932	.932	.951	.072 (.060~.085)
회피애착 모형	164.69	48	.000	.943	.918	.918	.940	.073 (.061~.085)

를 보면 불안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14 ($p < .05$), 거부민감성에 .65($p < .001$), 자기노출에 .25($p < .01$)로 모두 정적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거부민감성은 자기노출에 -.49($p < .001$)의 부적효과를, 친밀감 두려움에는 .31($p < .001$)의 정적효과를 나타내었고, 자기노출은 친밀감 두려움에 -.51($p < .001$)로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회피애착모형에 대한 각 경로의 계수로는 회피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19($p < .01$), 거부민감성에 .50($p < .001$)으로 정적효과를 자기노출에는 -.18($p < .05$)로 부적효과를 보였으며, 거부민감성은 자기노출에 -.24($p < .001$)의 부적효과를, 친밀감 두려움에는 .30($p < .001$)의 정적효과를

나타내었고, 자기노출은 친밀감 두려움에 -.47($p < .001$)로 부적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간접경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부트스트랩 자료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으며 95% 신뢰구간 내에서 영가설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값이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AMOS에서 제시된 간접효과는 매개변인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경로의 효과가 함께 측정되어 나온 값이다. 따라서 각 매개변인의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Phantom 변인을 사용하여 변형모형을 설정한 후 독립



* $p < .05$, ** $p < .01$, *** $p < .001$.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β)임.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와 경로계수

변인과 Phantom 변인 간의 가상관계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안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거쳐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간접경로의 이중매개효과와 회피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거쳐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간접경로의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하였다.

$$Z = \frac{abc}{\sqrt{a^2b^2S_c^2 + a^2c^2S_b^2 + b^2c^2S_a^2}}$$

불안애착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고,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개별매개효과의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불안애착모형에서는 불안애착에서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자기노출로 가는 경로(-.46 ~ -.23), 거부민감성이 자기노출을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17 ~ .36)와 불안애

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포함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12 ~ .34)가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불안애착에서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의 개별매개효과(.58 ~ .72)를 Phantom 변인을 이용한 변환모형에서 검증한 결과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에서 자기노출을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불안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이중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소벨 테스트로 검증한 결과 Z값이 3.83 으로 ±1.96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피애착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고, Phantom 변

표 4. 불안애착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불안애착	→	거부민감성	.65***(.57 ~ .72)		.65***
거부민감성	→	자기노출	-.49***(-.65 ~ -.35)		-.49***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51***(-.63 ~ -.38)		-.51***
불안애착	거부민감성 →	자기노출	.25**(.11 ~ .43)	-.32**(-.46 ~ -.23)	-.07(-.17 ~ .04)
불안애착	거부민감성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14(-.03 ~ .29)	.23**(.12 ~ .34)	.37**(.22 ~ .51)
거부민감성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31***(.16 ~ .46)	.25**(.17 ~ .36)	.56**(.43 ~ .69)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불안애착모형의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개별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	upper
불안애착 → 거부민감성 → 친밀감 두려움	.65**	.58	.72
불안애착 →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10	-.01	.2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회피애착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회피애착 → 거부민감성	.50***(.40 ~ .61)		.50***
거부민감성 → 자기노출	-.24***(-.36 ~ -.11)		-.24***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47***(-.58 ~ -.36)		-.47***
회피애착 → 거부민감성 → 자기노출	-.18*(-.33 ~ -.04)	-.12**(-.19 ~ -.58)	-.30**(-.41 ~ -.17)
회피애착 → 거부민감성 →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19**(.05 ~ .34)	.29**(.20 ~ .40)	.49**(.35 ~ .61)
거부민감성 →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30***(.17 ~ .44)	.11**(.06 ~ .20)	.42**(.28 ~ .55)

* $p < .05$, ** $p < .01$, *** $p < .001$

인을 이용한 개별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회피애착모형에서는 회피애착에서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자기노출로 가는 경로(-.19 ~ -.58), 거부민감성이 자기노출을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06 ~ .20)와 회피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포함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20 ~ .40)가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회피애착모형

역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이 각각 매개하는 경로에 대해 Phantom 변인을 사용한 변환모형에서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회피애착에서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41 ~ .62)가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여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회피애착에서 자기노출을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20 ~ .44)도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

표 7. 회피애착모형의 Phantom 변인을 이용한 개별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estimate	(95% 신뢰구간)	
				low	upper
회피애착	거부민감성 →	친밀감 두려움	.51**	.41	.62
회피애착	자기노출 →	친밀감 두려움	.33**	.20	.44

* $p < .05$, ** $p < .01$, *** $p < .001$

지 않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회피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이중 매개하여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소벨 테스트로 검증한 결과 Z값이 2.63 으로 ± 1.96 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성 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을 불안애착, 회피애착으로 나누어 거부민감성, 자기노출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고,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 및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취약점과 보완점이 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찾아 검증함으로써 친밀한 이성 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성인기의 미혼남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지역 10개의 4년제 대학에서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461

부의 설문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각각 거부민감성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불안애착은 친밀감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회피애착은 친밀감 두려움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수준이 높거나 회피애착수준이 높으면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회피애착수준이 높으면 친밀감 두려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Bowlby의 이론을 시작으로 한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이 성인의 이성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거부민감성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박희경, 2011) 불안정애착의 사람은 거부민감성이 높으며(이복동, 2001) 애착 유형은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준다는(Erozkan, 2009)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불안애착은 거부민감성에 영향이 있지만 회피애착은 거부민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김윤영(2010), 황지선(2013)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회피애착일수록 친밀감 두려움이 커진다는(최연화, 2012)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김남희, 2012)는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수준은 불안애착수준과 달리 이성과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거부민감성은 친밀감 두려움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친밀감 두려움이 높아진다. 이성관계의 친밀해지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할 때를 피할 수 없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왜곡되게 받아들여 모호한 상황에서도 민감하게 거부로 인지함으로써 스스로 친밀감 형성과정을 불안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거부민감성이 높고 낮음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김나영, 2009; 심경원, 2007)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거부민감성은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정 애착의 내적작동모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대인관계보다 애착의 대상이 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더욱 활성화되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불안애착은 자기노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애착은 자기노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애착대상에 관계하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구별되는 특성, 즉 불안애착은 결핍된 애착형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애착대상을 갈구하는 것에 비해 회피애착은 대상으로부터의 정서적 분리가 관계의 목표임으로 자기노출의 양상이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것은 Mikulincer와 Nachshon(1991)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애착은 안정애착과 같이 높은 자기노출을 보이고 회피

애착은 낮은 자기노출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Laurenceau 등(199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노출을 연구함에 있어 하부요인으로 애착유형을 예측변수로 사용했을 때 자기노출과 상관성이 없었다는 보고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불안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노출이 증가하는 것은 불안애착이 애착대상으로부터 애착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서를 과잉 표현한다는 Main(199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성관계에서도 애착의 대상이 되는 파트너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더 많은 지지와 친밀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노출을 많이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회피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노출이 감소하는 것은 회피애착이 애착대상으로부터 철수를 방어전략으로 사용하기에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자기노출을 해야 할 동기가 결핍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회피애착의 사회적 관계의 목표를 거리두기와 분리라고 설명한 Bowlby(1982), Shaver와 Hazan(198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 결과는 임상 장면에서 불안애착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노출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 개입하고 회피애착수준이 높은 경우는 자기노출의 양과 질 모두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네 번째로 거부민감성은 자기노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뢰를 타인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며(김교현, 1992) 사회적 승인, 친밀감, 정체성 확인 등의 보상이 기대 될 때 활성화 된다(Omarzu, 2000). 하지만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노출에 대해 친밀감 등의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노출에 대한 평가로써 자신이 상대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다. 따라서 거부의 단서가 되는 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자기노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더하기 위해 자기노출을 자연스럽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Impett, Gables와 Peplau(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노출을 적게 한다는 박혜련과 손은정(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노출자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동기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기노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Reis와 Shaver(1988)의 주장을 거부민감성이라는 구체적인 개인의 특성을 대입하여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섯 번째로 자기노출은 친밀감 두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노출이 많을수록 친밀감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성인초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노출이 많을수록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최지영과 최연실(2010)의 연구와 Laurenceau 등(2005)의 연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미영, 조현과 권정혜(2009)의 연구에서 자기노출은 친밀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이 이성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정현숙, 유계숙, 최연실, 1998)인 것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노출이 높을수록 서로 밀착되는 관계에서의 불안인 친밀감 두려움이 낮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여섯 번째로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애착모형에서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으로 다시 검증했을 때,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 사이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친밀감 두려움에 주는 간접경로가 직접경로의 효과를 가져간 것으로 거부민감성의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Downey와 Feldman(1996)이 거부민감성 모델에서 제시한 인지-정서적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한 결과로서 거부경험이 반복되는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불안애착보다 거부민감성으로 인한 결과가 친밀감 두려움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성관계에서 관계 갈등 이후에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의 파트너가 거부민감성이 낮은 여성의 파트너보다 더 많이 헤어진다는 연구결과(Downey et al., 1998)와 관련하여 관계 단절에 대한 반복적인 결과는 거부민감성을 더욱 강화하고 거부민감성에 대한 자기충족적 예언과 불안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의 강화로 잠재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어 새로운 애착의 경험을 기대하기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친밀감 두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 번째로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 사이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의 효과는 노출이 일어나는 맥락과 노출상호간의 관계의 성질이나 수신자의 반응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김교현, 1992). 이를 고려할 때 불안애착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기노출을 많이 하더라도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친밀감 두려움에는 강력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기노출은 자기노출의 양적인 부분을 나타낼 뿐 자기노출의 질적인 부분은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기노출의 깊이나 진솔성 등에 대한 것이 측정될 때 불안애착 특성과 관련된 정확한 자기노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안애착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노출 자체가 일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다. 즉 불안애착은 자기노출양상에서 안정애착과 회피애착이 혼재된 특성을 드러내는 점(Mikulincer & Nachshon, 1991)으로 어떤 불안애착인 사람은 자신이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자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노출일 수 있으며 어떤 불안애착인 사람은 노출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 자각하지만 과잉노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불안애착의 특성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자기노출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

여덟 번째로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회피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직접 미치는 효과보다 거부민감성을 거쳐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불안애착모형의 경로와 마찬가지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을 겪게 하는 자기 영속적인 순환 과정을 갖고 있다고(Berenson et al., 2009) 주장한 연구자들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회피애착은 애착대상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략이 불안애착과 다르지만 둘 다 애착대상으로부터 수용보다는 여러 형태의 거부를 경험한 불안정한 내적작동모형을 가진 것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상대에 대한 왜곡된 지각으로 부정적인 정

서를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행동으로 친밀감을 저해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김명숙, 2009; Downey et al., 1998)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반복되는 실패 경험은 이성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을 더하게 하고 회피애착인 사람에게는 더욱 공고한 방어체제를 활성화시켜 친밀한 이성관계로부터 더 철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로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에서 자기노출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회피애착수준이 높을지라도 자기노출이 증가하면 친밀감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은 관계의 욕구를 억압하고 철수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친밀감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노출이 회피애착의 사람에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Bowlby, 1982; Shaver & Hazan, 1988), 임상장면에서 회피애착수준이 높은 내담자에게 자기노출양상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훈련이 지원된다면 상대로부터 이해받는 경험들 하게 되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 번째로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 및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을 거친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애착과 친밀감 두려움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효과는 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 친밀감 두려움 사이에서 강력한 매개효과를 갖는 거부민감성이라는 특성을 자기노출이 보완하여 친밀감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담자는 임상장면에서 내담자의 애착요인을 고려하여 거부민감성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과 함께 자기노출에 대

한 훈련을 병행하여야 하겠다. 특히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겉으로 드러난 자기노출의 양은 증가했지만 실제의 애착대상과의 관계에 있어 불안해하거나 애정을 갈망하며 집착하는 형태로 자기노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자기노출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더 많이 경험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노출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이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경우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이 선행된 후 자기노출의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에 개입하여 점차적으로 자기노출을 증가시켜 이성관계에서 자신이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 점차 친밀감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불안정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나누어 매개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임상장면에서 이성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을 느끼는 미혼남녀에게 불안애착수준과 회피애착수준에 따라 차별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거부민감성의 강력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이성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인 취약점을 밝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자기노출간의 부적인 영향을 밝혀 자기노출자에 내적특성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자기노출이 다를 것이라는 이론가들의 주장을 거부민감성이란 구체적 변인을 대입하여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넷째, 불안애착과 거부민감성 및 회피애착과 거부민감성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기노출이란 요소를 찾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성교제에서 친밀감 두려움을 느끼는 미혼남

녀를 임상장면에서 도울 자료와 예비부부의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지역 10개의 4년제 대학에서 자료가 수집되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역과 대학의 수를 더 확대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반응수준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접 및 관찰 등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노출 변인은 개인적 특성과 상대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가 많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애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이성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교제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기노출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내담자의 성인애착과 거부민감성은 다소 변화가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노출 외에도 이성교제의 친밀감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변화가능하고 접근이 수월한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교현 (1992). 친교관계에서 자기노출의 기능.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196-222.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 (2012). 부모양육태도와 연애 두려움의 관계: 불안정 성인애착과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9). 성인애착유형 조합에 따른 이성교제행동과 이성관계 만족간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1).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 (2010). 여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술 (1997). 신 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출판부.
- 나보영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분화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4). 여고생의 애착이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경애 (1994).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 - 감정의 언어적 자기노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93-103.
- 심경원 (2007). 낙관성이 거부민감성, 정서표현성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이경희 (2001).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조 현, 권정혜 (2009). 자기개방과 공감 반응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상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254-255.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노안영 (2009). 성인애착이 도움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83-1396.
- 정윤경 (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 최연실 (1998). 결혼학개론. 서울: 상명대학교 출판부.
- 조현철, 강석후 (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묵음이 인과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17(3), 133-153.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

- 죽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지영, 최연실 (2010).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와 자기개방이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27-244.
-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최해림, 조영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한미혜 (2010). 원가족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성인초기 자녀의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2), 555-570.
- 한선영 (2005). 부모 애착과 이성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Balswick, J. (1975). The development of emotion scale & an expression of emotion scal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39, 140-146.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renson, K. R., Gyurak, A., Ayduk, Ö., Downey, G., Garner, M. J., Mogg, K., Bradley, B. P., & Pine, D. S.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64-1072.
- Berg, J. H. (1987). Responsiveness and self-disclosure. *Self-Disclosur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01-130. New York: Plenum Pres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Simpson, J. A., & Rholes, W. 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of-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218-225.
- Doi, S. C., & Thelen, M. H. (1993). The fear-of-intimacy scale: Replication and exten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5(3), 377-383.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 7(1), 45-61.
- Downey, G., Feldman, S., Khuri, J., & Friedman, S. (1994). Maltreatment and childhood depression. In Reynolds, W. M., & Johnston, H. F. (Ed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ssu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481-508). New York: Plenum Press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Engelchin, D. S. (2008). Fear of Intimacy and Hardiness Among Single Mothers by Choice: A Comparison to Divorced and Married Mothers.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2), 95-11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ozkan.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154.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9). Emotion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1), 19-29.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84-794.
- Highlen, P. S., & Voight, N. L. (1978). Effects of social modeling, cognitive structuring, and self-management strategies on affective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1), 21-27.
- Impett, E. A., Gables, S. L., &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Jourard, S. M. (1971). *Self-disclosur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Oxford, England: John Wiley.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Pietromonaco, P. R. (199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The importance of self-disclosure, partner disclosure, and perceived partner responsiveness in interpersonal ex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38-1251.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J. (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A daily-diary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323.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439-471.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valued social group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 Y. C. (1992). *The construction of the sense of intimacy from everyday social interac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Rochester.
- Lutwak, N., Panish, J., & Ferrari, J. (2003).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4), 909-916.
- Main, M. (1995). Attachment: Overview, with implications for clinical work.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Marrone, M. (1998). *attachment and interaction*.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321-331.
- Miller, L. C., & Read, S. J. (1987). Why am I telling you this? Self-disclosure in a goal-based model of personality. In Derlega, V. J., & Berg, J. H. (Eds.), *Self-disclosure (pp.35-58)*. New York: Plenum Press.
- Mitchell, A. E., Castellani, A. M., Herrington, R. L., Joseph, J. I., Doss, B. D., & Snyder, D. K. (2008). Predictors of intimacy in couples' discussions of relationship injuries: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21-29.
- Mount, M. K. (2005). *Exploring the role of self-disclosure and playfulness in adult attachment relationship*.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Morton, T. L. (1978). Intimacy and reciprocity of exchange: A comparison of spouse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 72-81.
- Omarzu, J. (2000). A disclosure decision model: Determining how and when individuals will

- self-disclo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74-185.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Duck, S., Hay, D. F., Hobfoll, S. E., Ickes, W., Montgomery, B. M.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p.367-389).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Schmidbauer, W. (1985). *Die Angst vor der Nähe*. Rowohlt taschenbuch verla.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473-501.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Stone, W. F. (1973). Patterns of conformity in couples varying in int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3), 413-418.
- Thelen, M. H., Vander Wal, J. S., Thomas, A. M., & Harmon, R. (2000). Fear of intimacy among dating couples. *Behavior Modification*, 24(2), 223-240.
- Repic, T. (2007). Fear of Intimacy Among Married and Divorced Persons in Association with Physical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6(3-4), 49-62.
- Waring, E. M., & Chelune, G. J. (1983). Marital intimacy and self 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 183-190.
-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원 고 접 수 일 : 2014. 01. 13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3. 25

게재결정일 : 2014. 04. 24

**The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Fear of Intimacy
in the Romantic Relationships of Early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Disclosure.**

Seong, Jeong A

Hong, Hye Young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disclosure on fear of intimacy in the romantic relationship of early adulthood. The data of 461 college students experiencing romantic relationships were analyzed by SEM for evaluating the two hypothesized models. The anxious attachment model showed that the full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disclos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fear of intimacy.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on the relation was not significant. The avoidant attachment model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disclosure was significant on the association between avoidant attachment and fear of intimacy. Also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disclosure was significant. Additio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Insecure Adult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Rejection Sensitivity, Self-Disclosure, Fear of Intimacy, Individual Mediating Effect.*